제163호(2018. 6. 29.)

한·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

송우진 이현근 명수환 유주영

목 차
contents

1. 한·EU 농축산물 교역 동향 ····· 1

2.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및 수입가격 분석 ····· 9

3.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과 성과 ····· 18

4. 요약 및 시사점 ·····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상현 부연구위원	061-820-2280	sanghyun@krei.re.kr
내용 문의	송우진 연구위원	061-820-2328	gnos@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63호
한·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6.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ISBN | 979-11-6149-175-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 약
Summary

○ **한·EU FTA 이행 7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3.3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05.1%, 6년차 대비 9.2% 증가**

- 한·EU FTA(2011.7.1. 발효)의 농축산물 개방 수준(시장자유화율)은 96.2%로, 지난 7년간 관세 인하 효과가 가시화되고 TRQ 적용 품목 등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음.
- 농축산물 총수입액에서 EU산 비중은 13.0%로 이행 6년차 대비 0.3%p 증가
- 부류별로 가공식품, 과일·채소, 축산물 수입액은 6년차에 비해 각각 20.4%, 16.6%, 5.9% 증가함. 반면, 곡물 수입액은 미국 및 러시아산 밀 수입량 증가와 미국산 옥수수 생산량 증가로 이행 6년차 대비 37.9% 감소

○ **한·EU FTA 이행 7년차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4.6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과 이행 6년차에 비해 각각 132.2%와 1.5% 증가**

- 우리나라 농축산물 총수출액에서 對EU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이행 6년차 대비 0.39%p 감소
- 부류별로는 농산물 부류의 과일·채소 수출(느타리버섯, 김치, 배 등) 증가폭이 컸으며, 이행 7년차 과일·채소 수출액은 6년차에 비해 19.4% 증가함.

○ **이행 7년차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6년차 대비 1.0%p 감소한 84.3%,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1.0%p 증가한 51.1%**

-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에서 돼지고기(99.9%)와 치즈(98.9%)는 매년 증가해 100%에 근접한 활용률을 보임.
-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에 비해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저조함. 특히 수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혼합조제식료품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행 6년차 대비 0.4%p 감소한 36.4%를 기록

○ **한·EU 간 농축산물 교역은 비대칭적 구조로 우리나라에 일방적인 수입특화 구조**

- 우리나라의 對세계와 對EU 농축산물 무역특화지수는 각각 -0.65과 -0.81로 수출에 비해 수입이 많은 구조임.

○ **한·EU 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7년간('11~'17) 6조 7천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은 86.5%를 기록**

- 지난 7년간 국내 보완대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수급 안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

01 한·EU 농축산물 교역 동향[1)]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이행 6년차 대비 9.2% 증가한 43.3억 달러

□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 · EU FTA의 농축산물 개방 수준은 96.2%로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15건의 FTA 중 한 · 미 FTA(97.9%) 다음으로 개방 수준이 높음.**

○ 한·EU FTA로 농가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일부 민감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최장 20년의 관세 장기철폐, 저율할당관세(TRQ), 긴급수입제한조치(ASG) 등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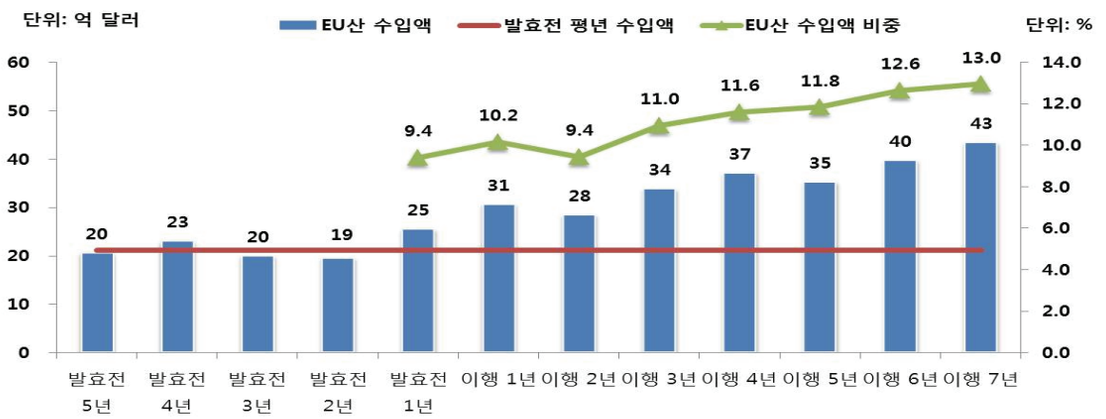
○ 지난 7년간 관세 장기철폐를 적용한 품목의 경우에도 관세 인하 효과가 가시화되고 TRQ 적용 품목 등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음.

1.1. EU산 농축산물 수입액

□ **한·EU FTA 이행 7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3.3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과 이행 6년차 대비 각각 105.1%와 9.2% 증가**

○ 우리나라 농축산물 총수입액에서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0%로 이행 6년차 대비 0.3%p 증가
-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억 달러): 21.1(발효 전 평년) → 39.7(이행 6년차) → 43.3(이행 7년차)

〈그림 1〉 EU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본 장의 농축산물 교역통계는 각 연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의 자료를 집계하였으며, 농축산물 HS코드가 2017년 3,068개에서 2018년 2,924개로 변경됨에 따라 "한·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변화와 시사점"(2017. 6. 30.)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편, 이행 7년차의 경우 2018년 6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과거 3개년 동월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EU산 곡물 수입액은 이행 6년차 대비 감소, 과일·채소, 가공식품, 축산물은 증가

○ 축산물 수입액은 유제품 등의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EU 내 공급량 증가[2]와 관세 인하효과 등으로 발효 전 평년과 이행 6년차 대비 각각 132.1%와 5.9% 증가

- 돼지고기 수입액은 이행 6년차 8.8억 달러에서 이행 7년차 9.0억 달러로 35.8% 증가
- 치즈, 유장, 조제분유 등 낙농품 수입액은 이행 6년차 4.4억 달러에서 이행 7년차 4.8억 달러로 10.6% 증가

· EU 돼지고기 도축량(천 톤): 17,662('16. 7. ~ '17. 3.) → 17,918('17. 7. ~ '18. 3.)
· EU 가공용 원유 생산량(천 톤): 110,830('16. 7. ~ '17. 3.) → 115,105('17. 7. ~ '18. 3.)
· EU산 냉동삼겹살 수입단가(달러/kg): 4.23(이행 6년차) → 4.32(이행 7년차)
· EU산 냉동돼지고기 수입단가(달러/kg): 2.14(이행 6년차) → 2.37(이행 7년차)

○ 곡물 수입액은 미국과 러시아산 밀 수입량 증가에 따른 EU산 수입량 감소,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이행 6년차 대비 37.9% 감소

- 밀과 옥수수 수입액은 각각 1,824만 달러와 688만 달러로 이행 6년차 대비 각각 75.6%와 74.5% 감소

○ 과일·채소류 수입액은 채소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선과일 수입 증가 등으로 이행 6년차 대비 16.6% 증가

- 오렌지는 이행 6년차 993만 달러에서 이행 7년차 2,281만 달러로 129.7% 증가[3]
- 기타 과실 수입액은 이행 6년차 3,856만 달러에서 이행 7년차 2,934만 달러로 23.9% 감소

〈표 1〉 EU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4]							변화율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5년차 ('15/'16)	6년차 ('16/'17) (B)	7년차 ('17/'18) (C)	C/A	C/B
전체	2,111	3,054	2,838	3,373	3,700	3,521	3,965	4,331	105.1	9.2
농산물	1,105	1,471	1,614	1,868	1,841	1,779	1,870	2,115	91.4	13.1
- 곡물	83	194	289	450	304	261	227	141	68.7	-37.9
- 과일·채소	58	71	87	88	102	105	140	163	179.6	16.6
- 가공식품	962	1,206	1,238	1,331	1,436	1,413	1,504	1,811	88.3	20.4
임산물	289	332	353	442	436	443	479	506	75.5	5.7
축산물	736	1,251	871	1,063	1,423	1,299	1,615	1,710	132.1	5.9

주 1) 발효 전 평년 값은 FTA 발효 직전 5개년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
2) 각 부류별로 발효 전 평년 값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년의 부류별 합계와 전체 값은 차이가 있음.
3)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EU의 돼지고기 도축량과 가공용 원유 생산량 통계는 EUROSTAT(2018. 6. 22. 기준)에서 조회함.
3) 오렌지 수입액은 신선오렌지(080510)와 오렌지주스(200911,200912,200919) 수입액이 포함된 값임.
4) 한·EU FTA의 이행 연차는 각 연도 7월부터 익년 6월을 의미하며, '11/'12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함.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이행 6년차 대비 1.5% 증가한 4.6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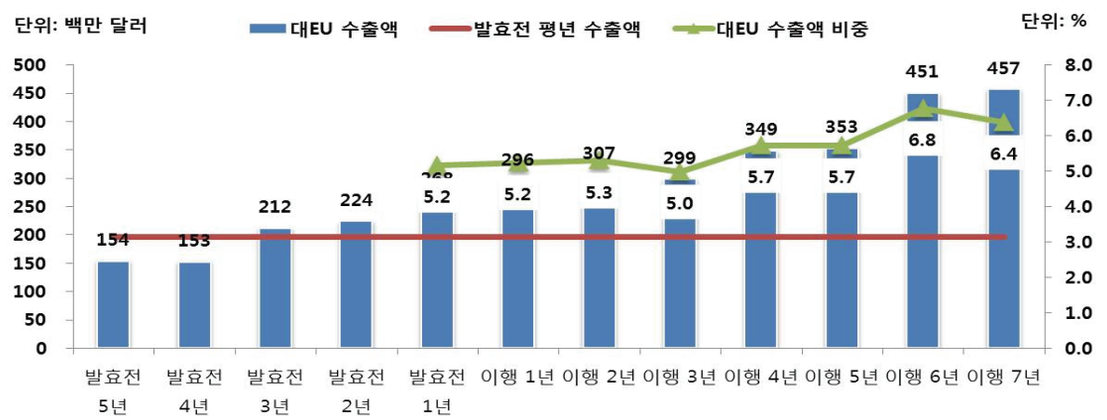
1.2. 對EU 농축산물 수출액

□ **한·EU FTA 이행 7년차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4.6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과 이행 6년차 대비 각각 132.2%와 1.5% 증가**

○ 우리나라 농축산물 총수출액에서 對EU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이행 6년차 대비 0.39%p 감소

-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억 달러): 2.0(발효 전 평년) → 4.5(이행 6년차) → 4.6(이행 7년차)

〈그림 2〉 對EU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가공식품 수출액은 혼합조제식료품, 커피조제품 등의 수출 감소로 이행 6년차 대비 1.2% 감소

- 혼합조제식료품 수출액은 이행 6년차 2.5억 달러에서 이행 7년차 2.4억 달러로 1.1% 감소
- 기타 음료 수출액은 이행 6년차 2,990만 달러에서 이행 7년차 3,330만 달러로 11.4% 증가
- 라면 수출액은 이행 6년차 2,412만 달러에서 이행 7년차 2,942만 달러로 22.0% 증가

○ 과일·채소 수출액은 느타리버섯, 김치, 배 등의 수출 증가로 이행 6년차 대비 19.4% 증가

- 느타리버섯 수출액은 이행 6년차 741만 달러에서 이행 7년차 904만 달러로 21.9% 증가
- 김치 수출액은 이행 6년차 541만 달러에서 이행 7년차 645만 달러로 19.3% 증가
- 배(신선) 수출액은 이행 6년차 18만 달러에서 이행 7년차 30만 달러로 67.7% 증가

○ 축산물 수출액은 젤라틴의 수출 증가로 이행 6년차 대비 36.6% 증가

- 젤라틴 수출액은 이행 6년차 869만 달러에서 이행 7년차 1,125만 달러로 29.4% 증가

對EU 곡물, 가공식품 수출액은 이행 6년차 대비 감소, 과일·채소, 축산물은 증가

〈표 2〉 농축산물 부류별 對EU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변화율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5년차 ('15/'16)	6년차 ('16/'17) (B)	7년차 ('17/'18) (C)	C/A	C/B
전체	197	296	307	299	349	353	451	457	132.2	1.5
농산물	179	274	283	277	320	327	427	427	138.1	0.03
- 곡물	1	1	1	1	1	1	2	1.08	33.0	-34.6
- 과일·채소	16	18	22	25	24	25	28	33	106.4	19.4
- 가공식품	163	254	260	250	295	301	398	393	141.6	-1.2
임산물	7	11	10	9	10	10	11	13	94.8	19.0
축산물	12	12	14	13	19	16	12	17	42.9	36.6

주 1) 발효 전 평년 값은 FTA 발효 직전 5개년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
2) 각 부류별로 발효 전 평년 값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년의 부류별 합계와 전체 값은 차이가 있음.
3)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농축산물 한·EU FTA 특혜관세 활용률[5)]

□ 이행 7년차 EU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6년차 대비 1.0%p 감소한 84.3%

○ 이행 7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21.3억 달러이며, 그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 수입액은 18.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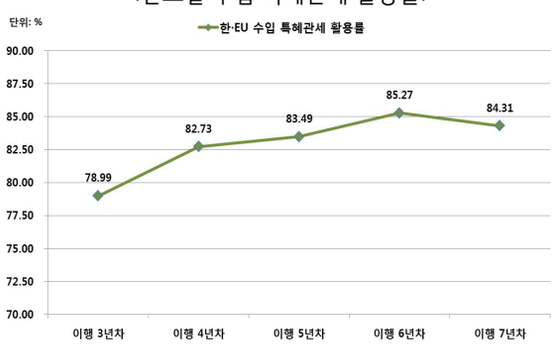
-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82.7('14/'15) → 83.5('15/'16) → 85.2('16/'17) → 84.3('17/'18)
- 축산물에서 돼지고기(99.9%)와 치즈(98.9%)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매년 증가해 100%에 근접한 활용률을 보임.
- 오렌지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4년차 이후 증가 추세이며, 이행 7년차에는 6년차 대비 8.9%p 증가한 89.4%를 기록
- 곡물에서 밀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90.4%로 이행 6년차 대비 7.9%p 증가했으며, 보리는 수입량의 대부분이 TRQ 추천 물량으로 원산지증명 서류가 필요치 않아 밀보다 낮은 37.9%를 기록했지만 이행 6년차 대비 7.7%p 증가함.

5) 이행 7년차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의 경우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집계된 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EU산 수입품목 중 협정에 따라 양허된 품목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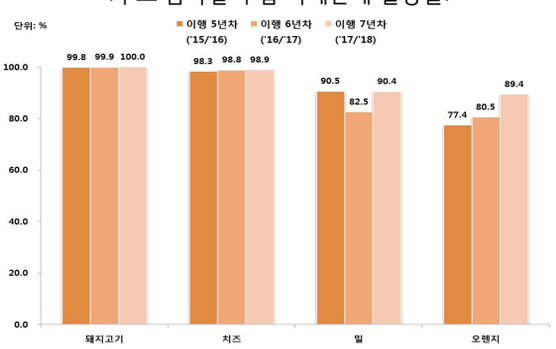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4.3%,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51.1%

〈그림 3〉 주요 농축산물 한·EU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연도별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주요 품목별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주: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6년차까지는 농축산물 관련 3,068개 HS코드, 이행 7년차는 2,924개 코드를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對EU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6년차 대비 1.0%p 증가한 51.1%

○ 이행 7년차 우리나라의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2.4억 달러[6]이며, 그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 수출액은 1.2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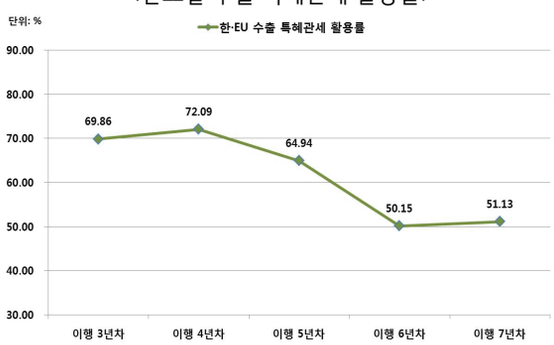
-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72.1('14/'15) → 64.9('15/'16) → 50.2('16/'17) → 51.1('17/'18)
- 신선농산물에서 느타리버섯(76.6%)과 팽이버섯(98.8%)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며, 느타리버섯은 이행 6년차 대비 0.9%p 증가한 반면, 팽이버섯은 0.3%p 감소함.
- 김치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5년차 이후 증가 추세이며, 이행 6년차 대비 5.0%p 증가한 91.1%를 기록
- 기타 과실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6년차 대비 19.3%p 감소한 48.9%
- 수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혼합조제식료품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행 6년차 대비 0.4%p 감소한 36.4%를 기록

6) 이행 7년차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을 위한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집계한 값으로 앞서 언급한 對EU 농축산물 수출액과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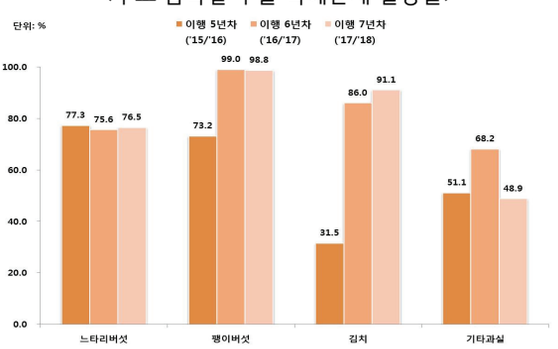
對EU 농축산물 무역특화지수는 -0.81로 수입에 특화

〈그림 4〉 주요 농축산물 한·EU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연도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주요 품목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주: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6년차까지는 농축산물 관련 3,068개 HS코드, 이행 7년차는 2,924개 코드를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 한·EU FTA 농축산물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 산업 및 품목별 무역경쟁력 비교를 위해 '산업 내 무역지수(G-L)'가 변형된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

○ 무역특화지수(TSI)는 양자 간 교역에서 품목별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특정 품목의 순수출액을 양국 간 총교역액으로 나누어 산출

- 무역특화지수가 1이면 완전 수출특화, −1이면 완전 수입특화 품목이고, 0이면 수출입 규모가 동일한 것을 의미

〈참고〉 무역특화지수(TSI) 산출 공식

$$TSI_{ij}^{k} = \frac{X_{ij}^{k} - M_{ij}^{k}}{X_{ij}^{k} + M_{ij}^{k}}$$

TSI_{ij}^{k}: i국가 k품목에 대한 j국가 무역특화지수
X_{ij}^{k} : i국가 k품목의 j국가로의 수출액
M_{ij}^{k} : i국가 k품목의 j국가로부터의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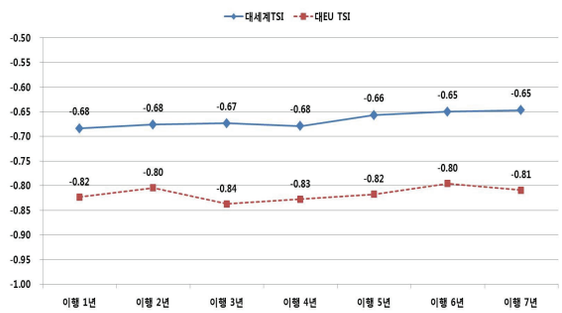
□ 한·EU 간 농축산물 상품교역은 비대칭적 교역구조로 우리나라에 일방적인 수입특화 구조

○ 우리나라의 對세계와 對EU 농축산물 무역특화지수는 각각 이행 6년차 -0.64와 -0.80에서 이행 7년차 -0.65와 -0.81로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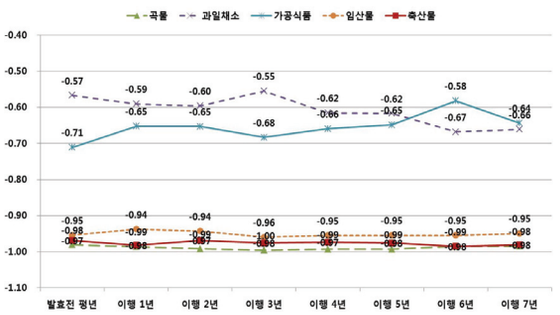
가공식품의 TSI가 -0.64로 가장 양호, 그다음은 과일·채소, 임산물, 곡물, 축산물

〈그림 5〉 한·EU FTA 농축산물 무역특화지수(TSI)

<對세계·對EU 농축산물 무역특화지수(TSI)>



<對EU 농축산물 부류별 무역특화지수(TSI)>



주: 무역특화지수(TSI)는 농축산물 관련 2,924개 HS코드(2018년)를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곡물의 무역특화지수는 발효 전부터 수입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행 7년차에는 對EU 상품수지 적자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행 6년차와 비슷한 -0.98

- 밀, 보리와 옥수수의 對EU 교역액은 이행 6년차 대비 각각 5,661만 달러, 1,226만 달러와 2,009만 달러 감소했으며, 상품수지 적자는 비슷한 금액만큼 개선됨.
- 밀의 무역특화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이행 3년차 이후 수입에 완전 특화되었으며, 보리와 옥수수는 발효 전부터 완전 수입특화

○ 축산물의 무역특화지수는 발효 전부터 완전 수입특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행 7년차 무역특화지수는 對EU 총교역액 증가와 동일한 수준의 상품수지 적자 개선 등으로 이행 6년차와 비슷한 -0.98

- 돼지고기와 치즈의 對EU 교역액은 이행 6년차 대비 각각 1,298만 달러와 989만 달러 증가했으며 상품수지 적자 개선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무역특화지수는 이행 6년차와 동일한 -1로 완전 수입특화 수준을 유지함.

○ 과일·채소의 무역특화지수는 발효 전 평년 -0.57에서 이행 3년차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행 7년차에는 -0.66으로 對EU 교역액 증가 등으로 이행 6년차 대비 소폭 상승

- 배는 우리나라가 對EU 수출에 완전 특화되어 있으며, 이행 6년차 대비 對EU 상품수지 흑자가 12만 달러 증가함.
- 김치, 팽이버섯과 느타리버섯은 모두 완전 수출특화 품목으로 對EU 교역액은 이행 6년차 대비 각각 105만 달러, 49만 달러와 163만 달러 증가함.

〈표 3〉 한·EU FTA 주요 품목별 무역특화지수(TSI)

구분	발효 후 이행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5년차 ('15/'16)	6년차 ('16/'17)	7년차 ('17/'18)
축산물	-0.98	-0.97	-0.98	-0.97	-0.98	-0.98	-0.98
- 돼지고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치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생우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곡물	-0.99	-0.99	-1.00	-0.99	-0.99	-0.99	-0.98
- 밀	-0.81	-0.67	-0.65	-1.00	-1.00	-1.00	-1.00
- 보리	-0.98	-0.99	-1.00	-1.00	-1.00	-1.00	-1.00
- 옥수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과일·채소	-0.59	-0.60	-0.55	-0.62	-0.62	-0.67	-0.66
- 배(신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김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느타리버섯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무역특화지수(TSI)은 농축산물 관련 2,924개 HS코드(2018년)를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2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및 수입가격 분석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이행 6년차 대비 3.2% 하락한 28만 톤

2.1. 돼지고기

□ **한·EU FTA 이행 7년차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돼지고기 가격하락 및 EU산 돼지고기의 E형 간염 발병우려에 따른 수요감소로 이행 6년차 대비 3.2% 감소**

○ EU산 냉동돼지고기 기준관세율(25%)은 '16년 7월부터 철폐되었으며, 냉동·냉장삼겹살은 10년에 걸쳐 철폐

- 이행 7년차 EU산 냉동돼지고기 관세율은 0%, 냉동삼겹살 9.0%, 냉장삼겹살 8.1%

○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돼지고기 가격하락, EU산 돼지고기 수입단가 상승 및 E형 간염 우려에 따른 수요감소 등으로 이행 6년차 대비 3.2% 감소한 28만 톤

-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수입량은 이행 6년차 대비 각각 4.7%, 3.3%, 35.0% 감소
  - 국내산 돼지 등급판정 두수(만 두)[7]: 1,534('16. 7. ~ '17. 5.) → 1,575('17. 7. ~ '18. 5.)
  -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원/kg, 탕박): 4,595('16. 7. ~ '17. 5.) → 4,553('17. 7. ~ '18. 5.)
  - EU산 돼지고기 수입단가(달러/kg): 3.05(이행 6년차) → 3.20(이행 7년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U산 비가열 돈육가공품의 유통·판매를 중단 조치('17. 8. 24.)한 이후, E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한 바 있음('17. 9. 5.).

〈표 4〉 EU산 돼지고기 수입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변화율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5년차 ('15/'16)	6년차 ('16/'17) (B)	7년차 ('17/'18) (C)	C/A	C/B
소계	수입량	139,343	208,271	125,446	148,558	240,226	247,157	289,331	280,136	101.0	-3.2
	비중	40.8	43.4	36.5	44.5	52.5	50.4	55.0	53.3	-	-
냉동 돼지고기	수입량	53,893	84,242	53,344	54,308	126,476	125,211	153,911	146,726	172.3	-4.7
	비중	25.7	28.6	23.7	23.2	42.7	40.0	46.0	27.9	-	-
냉동 삼겹살	수입량	76,459	113,650	62,833	80,308	97,295	103,260	117,989	114,082	49.2	-3.3
	비중	79.3	87.0	79.5	86.7	87.7	84.8	87.3	93.3	-	-
냉장 삼겹살	수입량	54	952	108	112	272	374	287	186	244.9	-35.0
	비중	0.4	3.7	0.7	1.4	2.7	3.2	2.0	1.3	-	-

주 1)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HS코드는 각각 0203299000, 0203291000, 0203191000임.
2) 비중은 해당 품목별 EU산 수입량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 돼지 등급판정 두수 및 돼지고기 가격의 경우 2018년 6월 자료가 산출되지 않아, 이를 제외한 11개월(7월~5월)간의 자료를 비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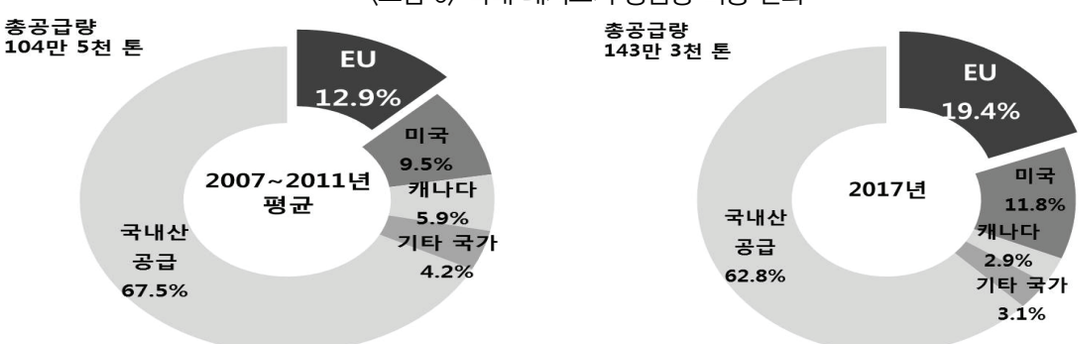
2017년 국내 돼지고기 총공급량에서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11년 평균 대비 6.5%p 상승한 19.4%

□ 2017년 국내 돼지고기 총공급량 중 EU산 돼지고기 수입량 비중은 19.4%로, 2007~11년 평균[8] 대비 6.5%p 증가

○ 2017년 돼지고기 총공급량은 국내 돼지고기 소비 증가로 2007~11년 평균(104만 4천 톤) 대비 37.0% 증가한 143만 3천 톤

- 국내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kg): 20.9('13) → 22.2('14) → 22.8('15) → 24.1('16) → 24.5('17)[9]
- 2017년 국내 총공급량의 2007~11년 평균 대비 증가분(38만 8천 톤) 중 국내산 증가분은 20만 톤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하고, EU산과 미국산은 각각 37.4%와 18.4%를 차지
-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07~11년 평균 대비 증가했으나, 그 비중은 4.7%p 감소한 62.8%
- 2017년 EU산 수입량 비중은 2007~11년 평균 대비 6.5%p 증가한 19.4%, 미국산과 기타 국가의 수입 비중은 증가한 반면 캐나다산은 감소 추세[10]
  - · EU산 수입량 비중(%): 13.8('12) → 10.7('13) → 15.7('14) → 18.1('15) → 18.3('16) → 19.4('17)
  - · 미국산 수입량 비중(%): 11.2('12) → 9.3('13) → 9.6('14) → 10.8('15) → 10.3('16) → 11.8('17)
  - · 캐나다산 수입량 비중(%): 5.3('12) → 3.6('13) → 3.0('14) → 3.4('15) → 2.9('16) → 2.9('17)

〈그림 6〉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 비중 변화



주 1) 국내산 공급량=국내 생산량+수입량−수출량
2) 2017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KREI KASMO(2017) 추정치.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8) 2007~11년 평균은 각 연도별 수입량 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을 의미함.
9) 2017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10) 2017년 돼지고기 전체 수입량은 53만 톤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가운데, EU산(28만 톤)과 미국산(17만 톤) 수입량은 각각 5.5%와 13.7% 증가했고, 기타 국가(4만 4천 톤)와 캐나다산(4만 1천 톤)은 각각 7.8%와 1.0% 감소함.

EU산 돼지고기 수입가격의 관세율 인하 효과는 13.3~25.0%로 추정

□ 냉동돼지고기 수입가격은 이행 6년차 대비 6.6% 상승했으나, 냉동 및 냉장 삼겹살은 각각 3.7%와 6.2% 하락

○ EU산 냉동·냉장삼겹살의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율 하락으로 이행 6년차 대비 각각 3.7%와 6.2% 하락

○ EU산 냉동돼지고기는 이행 6년차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수입단가가 이행 6년차 대비 10.8% 상승해 수입가격은 6.6% 상승

〈표 5〉 EU산 돼지고기 수입가격 동향

단위: 원/kg,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변화율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5년차 ('15/'16)	6년차 ('16/'17) (B)	7년차 ('17/'18) (C)	C/A	C/B
소계	3,735	4,493	3,973	3,886	3,846	3,433	3,716	3,729	-0.2	0.4
냉동돼지고기	2,563 (25.0)	2,800 (20.8)	2,398 (16.6)	2,395 (12.5)	2,947 (8.3)	2,558 (4.1)	2,442 (0.0)	2,603 (0.0)	1.6	6.6
냉동삼겹살	4,592 (25.0)	5,707 (22.7)	5,304 (20.4)	4,889 (18.1)	5,006 (15.9)	4,483 (13.6)	5,367 (11.3)	5,170 (9.0)	12.6	-3.7
냉장삼겹살	6,948 (22.5)	9,446 (20.4)	7,190 (18.4)	7,594 (16.3)	7,098 (14.3)	6,748 (12.2)	7,918 (10.2)	7,430 (8.1)	6.9	-6.2

주 1) 소계는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을 대상으로 산출.
2) 수입가격 산출식은 수입량×수입단가×(1+관세율)×평균환율/수입량
3) ( )는 해당 품목의 연도별 협정관세율.
4) 냉장삼겹살의 발효 전 평년은 수입실적이 없는 관계로 '09. 7.~'10. 6.을 제외한 4개년도의 평균으로 계산.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 · EU FTA 협정문 부속서.

□ 한·EU FTA 이행 7년차 돼지고기 주요 부위의 수입가격은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인하로 FTA 미발효 가정 대비 13.3~25.0% 하락 추정

○ 이행 7년차 EU산 돼지고기 수입가격을 FTA 미발효를 가정한 수입가격과 비교한 결과, 냉동돼지고기는 25.0%, 냉동삼겹살은 14.7%, 냉장삼겹살은 13.3% 하락한 것으로 추정

〈표 6〉 EU산 돼지고기 관세율 인하 효과

단위: 원/kg, %

구 분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기준관세율 적용 수입가격(A)	3,254	5,929	8,420
7년차 협정관세율 적용 수입가격(B)	2,603	5,170	7,430
관세율 인하 효과(B/A)	-25.0	-14.7	-13.3

EU산 유제품 수입량은 이행 6년차 대비 3.9% 감소한 13만 1천 톤

2.2. 유제품

□ 한·EU FTA 이행 7년차 유제품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 및 TRQ 증량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행 6년차 대비 3.9% 감소

○ 주요 유제품 중 치즈 및 조제분유는 관세할당물량(TRQ) 증량 및 협정관세율 장기 철폐, 탈·전지분유는 관세율(176%) 인하 없이 TRQ만 연차별로 증량
- 치즈의 TRQ는 4,560톤에서 매년 복리 3% 증량, 관세율은 15년(커드, 블루바인 치즈는 10년) 철폐
- 탈·전지분유의 TRQ는 1,000톤에서 매년 복리 3%씩 증량(16년차 이후 1,512톤으로 고정)
- 조제분유의 TRQ는 450톤에서 매년 복리 3%씩 증량, 관세율은 10년 철폐

○ 이행 7년차 EU산 유제품 수입량(13.1만 톤)은 관세율 인하 및 TRQ 증량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이행 6년차 대비 3.9% 감소
- EU산 치즈 수입량은 TRQ 증량, 관세율 인하 및 수입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행 6년차 대비 13.7% 감소했으며, 수입량 비중은 4.9%p 하락한 33.2%
- EU산 탈·전지분유 수입량은 이행 6년차 대비 13.4% 증가했으나, 수입량 비중은 한·뉴질랜드 FTA 발효에 따른 뉴질랜드산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1.5%p 감소한 34.8%
- EU산 조제분유 수입량은 EU산 조제분유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 및 관세율 인하, TRQ 증량에도 불구하고 이행 6년차 대비 37.3% 감소했으며, 수입량 비중은 34.1%p 하락한 65.9%

〈표 7〉 EU산 유제품 TRQ 및 수입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변화율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5년차 ('15/'16)	6년차 ('16/'17) (B)	7년차 ('17/'18) (C)	C/A	C/B
소계	수입량	38,701	79,324	58,006	64,692	82,886	98,198	136,532	131,220	239.1	-3.9
	비중	25.2	35.6	28.8	31.0	35.8	40.9	47.5	45.8	-	-
치즈	수입량	5,183	10,998	12,323	10,625	24,300	38,124	46,854	40,434	680.1	-13.7
	비중	10.3	14.9	14.5	12.1	22.5	35.3	38.1	33.2	-	-
	TRQ 기준량	-	4,560	4,560	4,696	4,837	4,982	5,132	5,286	-	-
탈·전지분유	수입량	1,255	24,782	5,889	8,227	8,978	8,733	8,920	10,118	693.6	13.4
	비중	13.6	63.7	33.3	35.1	39.1	36.9	33.6	34.8	-	-
	TRQ 기준량	-	1,000	1,000	1,030	1,060	1,092	1,125	1,158	-	-
조제분유	수입량	93	428	787	1,048	1,474	2,017	4,284	2,688	2,790.3	-37.3
	비중	8.2	15.1	31.6	36.8	48.9	54.9	100.0	65.9	-	-
	TRQ 기준량	-	450	450	463	477	491	506	521	-	-

주 1) 소계는 치즈, 탈·전지분유, 조제분유를 포함한 유제품 전체 수입량을 나타냄.
2) 치즈의 경우 크림치즈(HS코드: 0406101010), 체더치즈(HS코드: 0406901000) 등 14개 품목을 포함하며, 탈·전지분유의 HS코드는 각각 0402101010, 0402211000, 조제분유의 HS코드는 1901101010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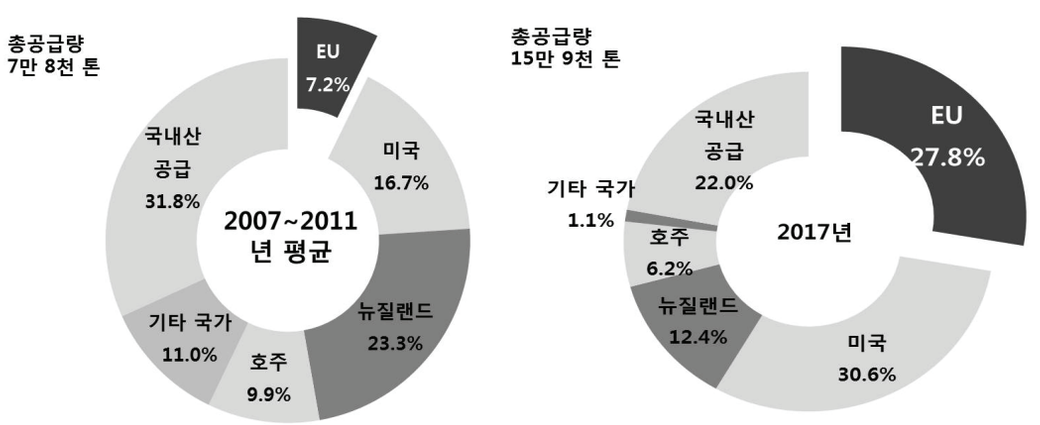
2017년 국내 치즈 총공급량 중 EU산과 미국산 비중은 각각 20.6%p와 13.9%p 증가했고 뉴질랜드와 호주산 비중은 감소

□ 2017년 국내 치즈 총공급량 중 EU산 치즈 수입량 비중은 27.8%로 2007~11년 평균 대비 20.6%p 증가

○ 국내 치즈 총공급량은 2007~11년 평균(7만 8천 톤) 대비 104.7% 증가한 15만 9천 톤

- 2017년 국내 총공급량의 2007~11년 평균 대비 증가분(8만 톤) 중 EU산 증가분은 3만 9천 톤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하고, 미국산과 국내산은 각각 44.1%와 12.9%를 차지
- 국내 총공급량 중 EU산 비중은 2007~11년 평균 7.2%에서 2017년 27.8%로 20.6%p 증가
- 미국산 수입량 비중은 2007~11년 평균 대비 13.9%p 증가했으며 이행 6년차 대비 1.7%p 증가, 뉴질랜드산과 호주산 수입량 비중은 각각 10.9%p와 3.7%p 감소[11)]
  - EU산 수입량 비중(%): 11.5('12) → 10.1('13) → 13.0('14) → 23.7('15) → 32.2('16) → 27.8('17)
  - 미국산 수입량 비중(%): 31.9('12) → 39.6('13) → 52.8('14) → 40.7('15) → 28.9('16) → 30.6('17)
  - 뉴질랜드산 수입량 비중(%): 23.9('12) → 22.2('13) → 8.4('14) → 11.6('15) → 12.0('16) → 12.4 ('17)
  - 호주산 수입량 비중(%): 7.5('12) → 5.3('13) → 4.4('14) → 6.0('15) → 5.5('16) → 6.2('17)

〈그림 7〉 국내 치즈 공급량 비중 변화



주: 국내산 공급량=국내 생산량+수입량−수출량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낙농진흥회.

11)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치즈 수입량은 12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한 가운데, EU산 치즈 수입량(4만 4천 톤)은 0.3% 감소했고, 미국산(4만 9천 톤), 뉴질랜드산(2만 톤)과 호주산(1만 톤)은 각각 22.6%, 19.0%와 30.3% 증가함.

EU산 주요 유제품 수입가격의 관세율 인하 효과는 7.3~18.8%로 추정

□ 한·EU FTA 이행 7년차 EU산 치즈 및 탈·전지분유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 대비 하락한 반면 조제분유는 상승

○ EU산 치즈와 탈·전지분유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하락, TRQ 증량 및 관세율 인하로 하락 추세를 보이지만, 국내 수요가 증가한 조제분유의 수입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

- EU산 치즈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 대비 51.4% 하락했으나 이행 6년차 대비 17.9% 상승
- EU산 탈·전지분유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 대비 55.5% 하락했으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행 6년차 대비 4.6% 상승
- EU산 조제분유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상승(112.3%)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40.1% 상승

〈표 8〉 EU산 유제품 수입가격 동향

단위: 원/kg,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변화율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5년차 ('15/'16)	6년차 ('16/'17) (B)	7년차 ('17/'18) (C)	C/A	C/B
치즈	9,514 (36.0)	8,569 (33.7)	8,372 (31.5)	9,298 (29.2)	7,127 (27.0)	6,077 (24.7)	5,329 (22.5)	6,284 (20.2)	-51.4	17.9
탈·전지분유	11,584 (176)	10,711 (176)	9,256 (176)	12,062 (176)	9,759 (176)	7,066 (176)	7,145 (176)	7,473 (176)	-55.0	4.6
조제분유	14,197 (36.0)	22,822 (32.7)	23,353 (29.4)	24,644 (26.1)	26,351 (22.9)	26,543 (19.6)	25,205 (16.3)	23,696 (13.0)	40.1	-6.0

주 1) 수입가격 산출식은 수입량×수입단가×(1+관세율)×평균환율/수입량
2) 각 품목별 협정관세율과 TRQ 기준물량을 고려하여 수입가격을 도출하였으며, 조제분유의 경우 전체 TRQ 물량을 조제분유(HS코드: 1901101010)에 모두 소진하였다는 가정하에 수입가격을 산출.
3) ( ) 안의 수치는 연차별 협정관세율을 의미.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 · EU FTA 협정문 부속서.

□ 한·EU FTA 이행 7년차 주요 유제품의 수입가격은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인하 및 TRQ 증량으로 FTA 미발효 가정 대비 7.3~18.8% 하락 추정

○ 이행 7년차 EU산 유제품 수입가격과 FTA 미발효를 가정한 수입가격을 비교한 결과, 치즈는 13.6%, 탈·전지분유는 7.3%, 조제분유는 18.8% 하락한 것으로 추정

〈표 9〉 EU산 주요 유제품 관세율 인하 효과

단위: 원/kg, %

구 분	치즈	탈·전지분유	조제분유
기준관세율 적용 수입가격(A)	7,276	8,061	29,169
7년차 협정관세율 적용 수입가격(B)	6,284	7,473	23,696
관세율 인하 효과(B/A)	-13.6%	-7.3%	-18.8%

EU산 밀, 옥수수와 보리 수입량은 이행 6년차 대비 감소

2.3. 곡물

□ **한·EU FTA 이행 7년차 EU산 주요 곡물 수입량(11만 3천 톤)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7.2%, 이행 6년차 대비 80.2% 감소**

○ FTA 이행 7년차 EU산 밀[12] 수입량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803.2% 증가한 6만 8천 톤으로 밀가루 수입량은 소폭 증가 추세를, 사료용 밀은 감소 추세를 보임.

- EU산 밀 수입량에서 사료용 밀(6만 톤)은 88.4%, 밀가루(3,606톤)는 5.3%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 대비 각각 4.0%와 16.7%를 차지
- 사료용 밀 수입은 주요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대내외 여건[13]에 따라 북미·러시아·호주·인도·EU 등으로 다변화되었으며, EU산 사료용 밀 수입은 이행 3년차부터 본격화됨.
- EU산 사료용 밀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수입단가가[14] 낮은 미국산과 러시아산 밀 수입량 증가 등으로 FTA 발효 전 평년과 이행 6년차 대비 각각 87.9%와 83.4% 감소[15]

○ EU산 옥수수[16] 수입량은 종자·팝콘·사료용 이외 기타 옥수수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과 이행 6년차 대비 각각 89.4%와 86.3% 감소한 1만 8천 톤을 기록

- EU산 옥수수 수입량에서 종자·팝콘·사료용 이외 기타 옥수수(7,499톤)는 41.3%, 증감을 반복한 사료용 옥수수(4,801톤)는 26.4%를 차지함.
- EU산 종자·팝콘·사료용 이외 기타 옥수수 수입량은 2012/13년 이후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 증가[17]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발효 전 평년 11.8%, 이행 6년차 6.2%, 이행 7년차 0.3%로 감소함.[18]
- 우리나라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에서 EU산 비중은 평균 1% 내외(이행 7년차 0.1%)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수입단가가 낮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산 수입량이 증가[19]

12) 메슬린(종자용, 제분용, 가루) 관련 제품(1.8~3%)과 불거밀(8%)의 기준관세율은 FTA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었으며, 밀가루(4.2%)는 4단계, 밀 분쇄물·조분과 밀 펠릿의 기준관세율(288.2%)은 11단계에 걸쳐 철폐됨.

13) 2007~2008년 세계 곡물 파동, 2010년과 2012년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밀 금수조치, 2012년과 2014년 미국의 가뭄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한 바 있음.

14) 한·EU FTA 이행 7년차 EU산 수입단가는 kg당 0.22달러, 미국과 러시아산은 각각 0.21달러와 0.19달러임.

15) 한·EU FTA 이행 7년차 전체 밀 수입량이 153만 톤으로 이행 6년차 대비 24.7% 감소한 가운데, 미국산(26만 7천 톤)과 러시아산(30만 2천 톤)은 각각 67.6%와 290.7% 증가함.

16) 사료용과 종자·팝콘·사료용 이외 기타 옥수수의 기준관세율(328%)은 각각 6단계('16. 7.)와 14단계('24. 7.), 옥수수 분쇄물·조분(162.9%)과 옥수수 가공곡물(167%)은 각각 11단계에 걸쳐 철폐되며, 옥수수가루(5%)는 FTA 발효와 동시에 철폐됨.

17)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2/13년 2억 7,319만 톤에서 2017/18년 3억 5,727만 톤으로 30.8% 증가함.

18) 한·EU FTA 이행 7년차 전체 수입량이 224만 톤으로 6년차 대비 7.2% 증가한 가운데, 브라질산(25.4만 톤)과 러시아산(100.5만 톤)은 각각 274.1%와 25.3% 증가함.

19) 한·EU FTA 이행 7년차 전체 수입량이 722.2만 톤으로 6년차 대비 9.2% 증가한 가운데, 브라질산(176.6만 톤), 아르헨티나산

EU산 기타 옥수수, 밀가루와 보리 수입가격은 이행 6년차 대비 하락

○ FTA 이행 7년차 EU산 보리[20] 수입량은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생맥아 및 맥주맥 수입량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496% 증가했지만, 수입전환 효과로 6년차 대비 58.6% 감소한 2만 6천 톤

- EU산 보리 수입량 가운데 생맥아·맥주맥 수입량(2만 4천 톤)은 89.1%를 차지하고, 기타 보리 수입량(2,887톤)은 10.9%를 차지
- EU산 생맥아·맥주맥 수입량이 발효 전 평년(1,052톤)보다 2,143% 증가했지만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호주와 중국산 수입 증가로 EU산 수입량은 이행 6년차보다 62.6% 감소[21]

〈표 10〉 EU산 주요 곡물 수입량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변화율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5년차 ('15/'16)	6년차 ('16/'17) (B)	7년차 ('17/'18) (C)	C/A	C/B
소계	수입량	180	337	634	1,291	873	778	570	113	-37.2	-80.2
	비중(%)	1.5	2.6	4.5	9.0	6.1	5.3	4.3	0.8		
밀	수입량	8	1	1	865	565	373	373	68	803.2	-81.7
	비중(%)	0.2	0.0	0.0	20.8	14.9	8.8	8.9	1.7		
옥수수	수입량	171	320	619	409	265	353	133	18	-89.4	-86.3
	비중(%)	2.2	4.2	7.4	4.2	2.6	3.5	1.5	0.2		
보리	수입량	2	16	14	17	43	52	64	26	1,496.3	-58.6
	비중(%)	0.9	6.1	4.9	5.9	13.3	21.1	28.8	10.5		
TRQ 기준량			10,000	10,000	10,800	11,600	12,400	12,772	13,155		
ASG 기준량			14,000	14,000	14,280	14,565	14,856	15,154	15,457		

주: 비중은 해당 품목별 EU산 수입량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EU FTA 이행 7년차 옥수수 가루의 수입가격은 이행 6년차 대비 상승했으나, 밀가루, 기타 옥수수와 생맥아·맥주맥은 하락

○ 이행 7년차 종자·팝콘·사료용 이외 기타 옥수수 수입가격(612원/kg)은 지속적인 관세율 인하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51.5%, 이행 6년차 대비 2.8% 하락

(182.7만 톤)은 각각 212.8%와 194.3% 증가했으며, 이행 6년차 수입실적이 없던 파라과이산은 30.9만 톤이 수입됨. 수입단가는 EU산이 kg당 0.21달러이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은 0.19달러임.

20) 겉보리(324% 또는 326원/kg 중 고액(율))와 쌀보리(299.7% 또는 361원/kg중 고액(율))는 양허제외, 생맥아(269%)와 맥주맥(513%)은 TRQ를 적용하고 TRQ 기준을 초과하는 물량은 16단계에 걸쳐 철폐하는 대신 ASG를 16년간 운영(이행 6년차 발동 수준은 15,154톤이며, 관세율은 생맥아 240%, 맥주맥 408%를 적용)

21) 한·EU FTA 발효 7년차 전체 수입량이 22만 5천 톤으로 이행 6년차 대비 12.6% 증가한 가운데 호주산 수입량(17만 2천 톤)은 38.7% 증가했고, 수입실적이 미미하던 중국산은 8,154톤이 수입됨. 수입단가는 EU산이 kg당 0.52달러로 22.0% 상승한 데 반해 중국산(0.42$/kg)과 호주산(0.43$/kg)은 각각 35.4%와 9.2% 하락함.

EU산 주요 곡물 수입가격의 관세율 인하 효과는 2.9~48.6%로 추정

○ 이행 7년차 밀가루 수입가격(985원/kg)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1.7% 상승했으나, 이행 6년차 대비 1.3% 하락

○ 이행 7년차 보리 수입가격(1,076원/kg)은 전반적인 수입단가 하락과 TRQ·ASG 기준 물량 확대로 FTA 발효 전 평년과 이행 6년차 대비 각각 61.6%와 29.0% 하락

〈표 11〉 EU산 주요 곡물 수입가격 동향

단위: 원/kg,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변화율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5년차 ('15/'16)	6년차 ('16/'17) (B)	7년차 ('17/'18) (C)	C/A	C/B
밀(밀가루)		748 (4.2)	1,115 (3.1)	998 (2.1)	1,030 (1)	928 (0)	1,067 (0)	997 (0)	985 (0)	31.7	-1.3
옥수수	기타 옥수수	1,263 (328)	1,588 (304.5)	1,530 (281.1)	1,207 (257.7)	830 (234.2)	767 (210.8)	630 (187.4)	612 (164)	-51.5	-2.8
	옥수수 가루	665 (5)	742 (0)	721 (0)	746 (0)	825 (0)	682 (0)	783 (0)	828 (0)	24.4	5.8
보리 (생맥아·맥주맥)		2,805 (269) (513)	1,032 (252.1) (480.9)	1,075 (235.3) (448.8)	1,172 (218.5) (416.8)	1,647 (201.7) (384.7)	1,699 (184.9) (352.6)	1,516 (168.1) (320.6)	1,076 (151.3) (288.5)	-61.6	-29.0

주 1) 수입가격 산출식은 수입량×수입단가×(1+관세율)×평균환율/수입량이며, 보리의 경우 TRQ와 ASG 기준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함.
2) 평균환율은 각 이행연차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KEB하나은행 고시환율의 매매기준 평균환율을 적용함.
3) ( )는 해당 품목의 연도별 협정관세율이며, 보리는 순서대로 각각 생맥아와 맥주맥의 TRQ 초과 시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 · EU FTA 협정문 부속서.

□ 한·EU FTA 이행 7년차 주요 곡물(밀, 옥수수, 보리)의 수입가격은 기준관세율 철폐 또는 인하의 영향으로 FTA 미발효 가정 대비 2.9~48.6% 하락 추정

○ 종자·팝콘·사료용 이외 기타 옥수수는 관세율 인하폭(23.4%p)이 크고, 보리는 TRQ 기준 물량의 연차별 확대로 관세율 인하 효과가 각각 38.3%와 48.6%로 비교적 크게 나타남.

○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는 기준관세율이 조기에 철폐되어 관세율 인하 효과가 각각 2.9%와 4.8%의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12〉 EU산 주요 곡물 관세율 인하 효과

단위: 원/kg, %

구 분	밀(밀가루)	옥수수		보리(생맥아·맥주맥)
		기타 옥수수	옥수수 가루	
기준관세율 적용 수입가격(A)	1,014	993	869	2,095
7년차 협정관세율 적용 수입가격(B)	985	612	828	1,076
관세율 인하 효과(B/A)	-2.9	-38.3	-4.8	-48.6

03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과 성과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7.7조 원('11~'17) 중 86.5%인 6.7조 원 집행

3.1.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현황

□ 정부는 2011~2020년까지 10년간 총 10조 8천억 원[22] 규모의 한 · EU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 정부는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농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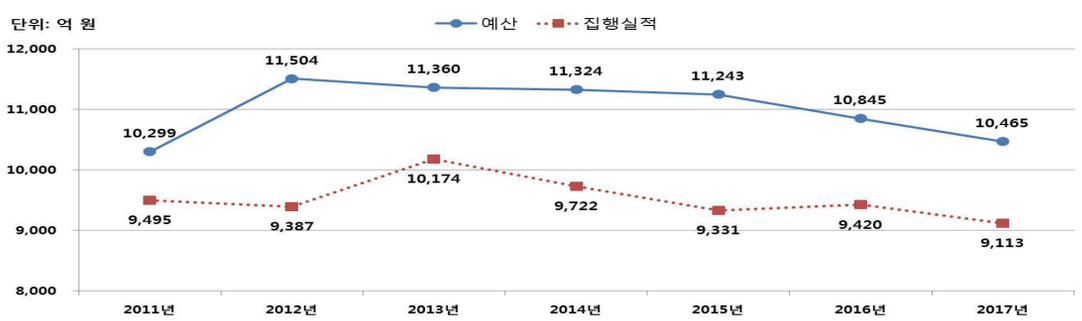
- 한·EU 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축산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해 10년간 10조 8천억 원 규모의 국내보완대책 수립
-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은 6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축사시설현대화, 원유수급안정, 가공원료유지원, 사료산업종합지원, 가축개량 등 26개 세부사업 시행

□ 2011~2017년 7년간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투융자 예산 7조 7천억 원에서 86.5% 집행

○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7조 7,040억 원에서 86.5%인 6조 6,642억 원 집행

- 지속적인 저금리 현상 및 담보 부담으로 융자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고 일부 사업비가 이월되어 예산 집행률이 낮게 나타남.
- 2017년에는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1조 465억 원에서 87.1%인 9,113억 원 집행

〈그림 8〉 한·EU FTA 농업분야 국내대책 예산과 집행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2) 타 FTA 국내보완대책과 중복사업, 기간연장, 증액 등을 모두 포함한 규모임.

〈표 13〉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재정지원 계획

단위: 억 원

분야	사업명	′11	′12	′13	′14	′15	′16	′17	′18	′19∽′20	총계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축사시설현대화	1,633	2,760	2,200	1,692	1,544	1,401	1,549	2,072	355	15,206
	축산경영종합자금	1,226	1,396	1,356	1,356	1,416	1,416	1,416	1,416	5,217	16,215
	사료산업종합지원	400	600	950	1,000	930	722	583	570	2,206	7,961
	도축가공업체지원	1,500	1,500	1,500	1,500	1,700	1,700	1,700	1,700	2,908	15,708
	종축전문화지원	112	247	147	89	-	-	-	-	0	595
	송아지경매시설현대화	5	10	9	9	-	-	-	-	0	33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	8	15	13	13	-	-	-	-	0	49
	농식품시설현대화	70	70	70	-	-	-	-	-	0	210
	쇠고기생산성향상	30	25	18	-	-	-	-	-	0	73
	한우농가조직화지원	50	-	-	-	-	-	-	-	0	50
	농축산전시체험홍보관 설립	15	-	-	-	-	-	-	-	0	15
	축산종합지도지원	18	-	-	-	-	-	-	-	0	18
	소계	5,067	6,623	6,263	5,659	5,590	5,239	5,248	5,758	10,686	56,133
축산물 수급관리	축산자조금	248	214	214	193	230	250	260	260	119	1,988
	송아지생산안정지원	68	426	43	13	43	6	7	7	28	641
	원유수급안정 (학교급식, 수급조절)	305	333	416	482	754	585	492	520	578	4,493
	가공원료유지원	100	72	100	122	140	170	170	170	473	1,517
	원유수급안정	5	4	-	-	-	-	-	-	0	9
	소계	726	1,049	773	810	1,167	1,011	929	957	1,226	8,648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축산물이력제	154	165	182	182	223	203	194	206	317	1,826
	축산물HACCP인증지원	65	72	-	-	-	-	-	-	0	137
	소계	219	237	182	182	223	203	194	206	317	1,963
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065	1,240	1,540	1,577	1,363	1,190	1,025	970	2,100	12,070
	가축분뇨처리시설	801	708	870	976	815	1,143	1,096	932	644	7,985
	친환경축산직불	30	70	102	173	179	178	172	171	709	1,784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42	242	224	310	279	-	-	-	0	1,297
	소계	2,138	2,260	2,736	3,036	2,636	2,511	2,293	2,073	3,453	23,136
가축질병 대응	시도가축방역	1,575	803	783	1,020	1,138	991	1,007	1,192	3,335	11,844
	가축위생방역본부	223	198	208	213	397	249	270	288	329	2,375
	소계	1,798	1,001	991	1,233	1,535	1,240	1,277	1,480	3,664	14,219
축산기술 보급	가축개량지원	344	327	408	397	477	641	524	537	223	3,878
	축산물식육처리전문 인력양성	7	7	7	7	-	-	-	-	26	54
	소계	351	334	415	404	477	641	524	537	249	3,932
총계		10,299	11,504	11,360	11,324	11,243	10,845	10,465	11,011	19,980	108,03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시행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수급 안정 등 가시적 성과

3.2.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

□ **지난 7년간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수급 안정 등 가시적 성과를 보임**

○ FTA 국내보완대책은 정부의 정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축산 생산성, 수급 및 안전성 관리, 기술보급 등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23)]

○ 축사시설현대화, 가축개량 사업 시행은 축종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돼지 생산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연간 모돈 두당 출하두수(MSY)'와 '비육돈 일당 증체량'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연간 모돈 두당 출하두수(MSY): → 14.6('12) → 16.9('14) → 16.8('15) → 16.9('16) → 16.7('17)
  · 비육돈 일당 증체량(kg/일): 0.66('10) → 0.68('12) → 0.67('14) → 0.67('15) → 0.68('16)
- 낙농 분야의 '젖소 두당 산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젖소 두당 산유량(톤): 9.93('10) → 10.01('12) → 10.02('14) → 10.07('15) → 10.36('16) → 10.45('17)

○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 시행으로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 및 사료가격 안정, 사료 품질 향상에 기여
- 사료가격 변동을 일정 수준(5%) 이하로 유지하였으며, 사료 품질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사료가격 변동계수(%): 2.44('12) → 2.61('14) → 7.85('15) → 3.41('16) → 1.37('17)
  · 사료 품질 부적합률(%): 2.1('12) → 1.8('14) → 1.0('15) → 0.9('16) → 0.9('17)

○ 원유수급안정 사업은 원유 수급 안정을 통한 낙농가 및 유업체의 경영 안정과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소비 기반 확대에 기여
- 학교우유 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 발달 및 건강 증진과 함께 우유 소비 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우유급식 지원 범위 확대: 초등학생+중학생('16)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17)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 시행으로 가축분뇨를 꾸준히 자원화하여 국내 자원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
- 축사 환경 개선, 악취 저감으로 축산 농가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
  · 가축분뇨자원화율(%): 86.6('10) → 88.7('12) → 89.7('14) → 90.6('16) → 91.0('17)

23) 세부적인 내용은 '2017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참조.

04 요약 및 시사점

□ 한·EU FTA 이행 7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3.3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05.1%, 이행 6년차 대비 9.2% 증가

○ 한·EU FTA(2011. 7. 1. 발효)의 농축산물 개방 수준(시장자유화율)은 96.2%로, 지난 7년간 관세 인하 효과가 가시화되고 TRQ 적용 품목 등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음.

○ 농축산물 총수입액에서 EU산 비중은 13.0%로 이행 6년차 대비 0.3%p 증가

○ 부류별로 가공식품, 과일·채소, 축산물 수입액은 6년차에 비해 각각 20.4%, 16.6%, 5.9% 증가함. 반면, 곡물 수입액은 미국 및 러시아산 밀 수입량 증가와 미국산 옥수수 생산량 증가로 이행 6년차 대비 37.9% 감소

□ 한·EU FTA 이행 7년차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4.6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과 이행 6년차에 비해 각각 132.2%와 1.5% 증가

○ 우리나라 농축산물 총수출액에서 對EU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이행 6년차 대비 0.39%p 감소

○ 부류별로는 농산물 부류의 과일·채소 수출(느타리버섯, 김치, 배 등) 증가폭이 컸으며, 이행 7년차 과일·채소 수출액은 6년차에 비해 19.4% 증가함.

□ 이행 7년차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6년차 대비 1.0%p 감소한 84.3%,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1.0%p 증가한 51.1%

○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에서 돼지고기(99.9%)와 치즈(98.9%)는 매년 증가해 100%에 근접한 활용률을 보임.

○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혼합조제식료품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행 6년차 대비 0.4%p 감소한 36.4%를 기록

□ 한·EU 간 농축산물 교역은 비대칭적 구조로 우리나라에 일방적인 수입특화 구조

○ 우리나라의 對세계와 對EU 농축산물 무역특화지수는 각각 -0.65와 -0.81로 수출에 비해 수입이 많은 구조임.

□ 한·EU 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7년간('11~'17) 6조 7천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은 86.5%를 기록

○ 지난 7년간 국내 보완대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수급 안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

□ 국내 축산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임. 가격 열위에 있는 국산 축산물의 생산 확대는 시장 세분화의 진행과 고품질 시장의 확대를 의미함. 따라서 국산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유지 · 강화를 통한 성장 전략이 필요함.

□ 한·EU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저조는 수출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KREI 농정포커스

2018년

제163호 한·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명수환, 유주영)
제162호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박수연, 한석호)
제161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송성환, 박혜진)
제160호 2018년 10대 농정 이슈(김병률, 이명기 등)

2017년

제159호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남경수, 염정완, 김만이)
제158호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허장)
제157호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제156호 2017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 수급 전망(김성우, 최선우, 임효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제155호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성재훈, 이혜진, 정학균)
제154호 신정부 쌀 산업 정책 방향(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제153호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의식)
제151호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김정섭, 이정해)
제150호 한·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제149호 소 사육 통계의 이력제 자료 대체와 시사점(이형우, 김진년, 서홍석, 김충현)
제148호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제147호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제146호 효과적인 산불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제145호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 등)
제144호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박수연 정민국)
제143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개선 방향(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제142호 2017년 10대 농정이슈(김병률, 이용선, 김연중 등)
제141호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산물 가격 동향과 전망(이형우, 정세미, 지선우, 김형진, 한봉희)

2016년

제140호 2016년 한·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제13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138호 2016년 한·중,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제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제136호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제134호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박미성, 신성철)
제133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KREI 농정포커스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제121호 한 · 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제119호 농업 · 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11호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옥, 노호영)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 · 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